

# FOCUS

## - 콘크리트믹서트럭 통행증 재발급 -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서는 지난해 발급한 통행증 기간이 만료(1998. 9. 21~1999. 3. 20)됨에 따라 2차 재발급신청을 하여 수도권 레미콘공급 가능지역 회원사 35개사 53개공장 3,056대를 발급하여 회원사에 배부하였다.

통행증발급이전의 레미콘공급은 도심권 운행의 엄격한 통행제한을 받아왔으며, 업계의 과태료 및 레미콘공급의 차질로 경제적 부담이 커왔었던 것으로 이번의 이러한 통행증 발급은 업계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통행증 발급 및 믹서트럭 운행상의 문제점을 풀어나갈 계획이며, 통행증 발급으로 레미콘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수도권 건설현장에 있는 건설사들의 공정기간 단축등 건설분야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 - 국내 외국 건설기술자 증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따르면 98년말 현재 국내 건설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건설기술자는 총 8백53명으로 전년말의 8백12명보다 4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국적별 -

국적별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	중국	캐나다	기타
등록자수(명)	374	133	177	110	88	12	6	12

### - 등급별 -

등급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타
등록자수(명)	282	40	29	117	385

### - 업태별 -

업태별	감리등 용역	일반건설	전문건설	기 타
등록자수(명)	601	119	9	114

## - 건교부 지방건축조례 인터넷서비스 -

건설교통부는 기존의 건축법령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한 건축기준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령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하므로, 이제까지는 해당지역 관공서를 방문하여 직접 자료를 얻어야 하는등 불편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를 찾아 볼 수 있어, 이를 알기 위하여 미리 현지에 출장하는 사례가 없게 되고, 이에따른 인력과 경비를 크게 줄일수 있게 되었다.

현재 건교부의 홈페이지에는 건축조례 242개를 수록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며, 앞으로 개정되는 건축조례의 경우 바로 수정·보완하여 최신자료를 계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oct.go.kr>  
(도심건축심의관 공개자료실)

### - 99년도 주택건설 종합계획 확정 -

건설교통부는 지난 2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9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99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98년도보다 31%증가한 40만호의 주택을 99년중 건설키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총 9조 4,200억원의 주택경기 활성화 자금지원과 600만평의 신규택지를 개발·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0만호 주택건설중 공공부문의 건설자금지원을 통한 임대 10만호, 분양5만호로 총 15만호를, 민간부문에서는 약 25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1만호)를 포함하여 여러 수요계층의 소득수준에 부응하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부도사업장 조기정상화 추진, 도심군부대 이전사업 촉진, 주택금융 확충 등을 통한 25만호의 주택건설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년도 주택경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도록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부도사업장

조기정상화, 도심군부대 이전사업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하였다.

첫째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재개발조합원의 국·공유지 매입 및 변상금 부담완화,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자금지원 조건 개선등으로 재개발사업을 지원키로 하였으며, 둘째 부도사업장 조기정상화를 위하여 부도사업장 인수 촉진자금을 계속지원(98,189억원→99,600억원)하고, 대출금리를 인하(9.5→8.5%), 공사재개시 신규주택건설 사업에 우선하여 기금대출을 지원, 셋째 도심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공사, 토지공사로 하여금 도심군부대 이전지를 매입, 택지로 개발하고자 1/4분기중 대상부지를 확정하고 택지개발계획 승인후 대지조성비등을 지원(1,000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경기 활성화 자금지원 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98년도		99년도
	계 획	실 적	
합 계	8조 9,900	7조 5,962	9조 4,170
• 중도금 대출	6조 6,500	6조 440	7조 2,000
- 국민주택기금	4조 5,000	3조 8,317	4조
- 민영자금	2조 1,500	2조 2,123	3조 2,000
• 미분양 주택 해소자금	1조 4,000	1조 1,770	1조 3,400
• 중형 임대주택자금	3,000	401	4,000
• 전세반환자금	3,000	1,554	1,500
• 임대중도금 상환연장	600	530	1,200
• 재개발 사업자금	1,000	552	1,000
• 인수촉진자금	800	189	600
• 중소기업 운전자금	1,000	526	470

### - 외국 건설사 국내 유입현황 -

건설 시공분야에 있어 외국건설사들의 국내 진출은 94. 1 UR서비스 협정타결로 단계적으로 민간건설이 개방되었고, 공공건설 또한 정

부조달협정으로 97. 1월부터 일정액 이상의 건설공사에 한해 개방하였다.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일정액 이상의 건설공사에 개방(정부조달협정)하였으며, 중앙정부기관 : 500만 SDR(약55억원), 지방정부기관 : 1,500만 SDR(약 165억원), 정부투자기관 : 1,500만 SDR 에 한정하였다.

건설 용역분야의 경우 건축은 '96. 1부터 국내건축사와 공동진출을 허용하였고, 토목은 '93. 5에 민간부문은 기개방하였고 공공부문은 '97. 1부터 일정규모 이상에 한해 개방하였으며, 중앙정부 : 13만 SDR, 지방정부 : 20만 SDR이상에 한해 개방하였다.

외국업체의 국내진출현황을 연도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별	~93	1994년도	1995년도	1996년도	1997년도
업체수	42	56(+14)	76(+20)	87(+11)	97(+10)

국적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적별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싱가폴	벨기에	캐나다	기타
업체수	34	31	9	7	4	2	2	2	6

업종별로는 시공이 27개, 용역이 66개로 나타났다으며, 용역업체가 시공업체보다 많은 것은 시장 개방시기, 투자규모 및 기술수준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업종별로 국내진출 건설사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 외국지사목록(시공분야)

번호	지 사 명	업 종	국 적	비고
1	백텔인터내셔널코퍼레이티드	토목건축공사	미국	
2	플루어·다니엘이스턴링크	토목건축공사	미국	
3	(주)후지타	토목건축공사	일본	
4	보비스아시아퍼시픽리미티드	토목건축공사	싱가폴	
5	중국건축공정총공사	토목건축공사	중국	

■ 외국지사목록(용역분야)

번호	지 사 명	업 종	국 적	비고
1	도요엔지니어링(주) 서울지점	건설감독업무	일본	
2	그레버인터내셔널에스에이작크	냉연설비 건설공사관련 용역제공	벨기에	
3	디켈호푸운트비트만아게 한국지점	토목공사관련 기술용역 제공	독일	
4	RPT한국지점	성수대교복 구공사에 대한 감리업무	영국	
5	모트맥도널드트리마티드 한국지점	가양대교 건설에 따른 감리업무	영국	
6	백텔인터내셔널 한국지점	원전건설사업자문을 위한 기술용역	미국	
7	보비스인터내셔널리미티드 한국지점	건설공사관리에 관한 자문서비스	영국	
8	소시뜨누벨르테크니까즈(주)	건설관련 연락업무	프랑스	
9	소프레가즈(주) 한국지점	기술용역업	프랑스	

번호	지 사 명	업 종	국 적	비고
10	스기디자인(주)서울연락사무소	건축설계관련 업무연락	일본	
11	시오미건축구조설계(주)연락사무소	한국내 자회사설립을 위한 연락업무	일본	
12	씨전트앤드런디합명회사 한국지점	원전건설본사용 역제공관련 연락업무	미국	
13	쎄겔렉 한국지점	기술용역업무	프랑스	
14	아이타포퍼레이션 한국지점	산업폐기물소각로 건설운영에 따른 기술지원서비스	미국	
15	알스톡엑스포트 한국지점	원자력발전소 건설관련 기술제공	프랑스	
16	에이티비씨인터내셔널 한국지점	원자력공사 관리용역	미국	
17	엘브이아이 한국연락사무소	건축및설계에 대한 업무연락	덴마크	
18	오리니날설계(주)서울지점	상하수도, 공업용수도, 환경위생 시설조사, 환경해석 연락업무	일본	
19	일건설계(주) 서울사무소	본사수주, 토목건축공사의 설계 자문 및 감리자문	일본	
20	아찌후지 한국사무소(주)	한국시장진출을위한 시장조사 및 준비업무	일본	
21	(주)조오다이 서울지점	한국관계기관 및 건설건설턴트와의 기술적 정보교환	일본	
22	캐나다 원자력공사 한국지점	원자력발전소 건설관련 용역 기술서비스	캐나다	
23	티너스타이너인터내셔널에스에이	건설 및 설계분야의 서비스제공	벨기에	
24	테일러우드로메니지먼트LTD	건축관련 기술서비스	영국	
25	트레팔카하우스컨스트럭션인터내셔널	건설감리 및 건설관련 기술용역	영국	
26	파슨스오버시즈컴퍼니	건축관련 기술토목엔지니어링	미국	
27	프리마롬엑스포트 한국지점	원자력발전소 건설관련기술용역	프랑스	
28	후루위대니엘이스턴잉크	건설물설계, 수리, 개조, 용역제공	미국	
29	시스트라소프네투스프레레일	건설엔지니어링, 감리 및 설계	프랑스	
30	임해역계획센타 서울지점	환경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일본	
31	보비스아시아페시픽피타리아마티드	건설공사의 관리에관한 자문서비스	싱가폴	
32	다우델펠엘리스앤드어소시에지리미티드	건축구조 감리업	캐나다	
33	번스앤드맥도널인터내셔널 한국지점	건설감리업무	미국	
34	다니엘멘존스앤드멘델홀	건축, 엔지니어링등 기술관련서비스	미국	
35	씨윌리암할크로우앤드파트너리미티드	인천신공항 건설에 따른 기술자문용역	영국	
36	휘스터윌러리코리아리미티드	기술제공과 건설공사 감독	미국	

■ 외국인 법인목록(응역)

번호	회사명	자본금(백만원)	투자액(천불)		비고
				비율(%)	
1	대동기술(일본)	250	96	30	
2	두선철강(주)(일본)	250	65	20	
3	삼성엔지니어링(주)(일본)	15,000	2,260	10	
4	신아기연(일본)	170	108	49	
5	에스엔 아키텍스(일본)	72	72	70	
6	케이엔시스템(일본)	100	107	75	
7	한국오리지널설계(일본)	100	121	80	
8	동성석창(일본)	125	100	64	
9	라이브라컨설턴트(일본)	125	65	40	
10	창건엔지니어링(일본)		65	77.60	
11	코보개발(주)(일본)	200	136	49	
12	한국엔아이씨검정(주)(일본)	200	110	40	
13	다이아몬드 컨설팅(일본)	100	124	100	
14	코리아랜팩엔지니어링(주)(미국)	200	105	37.50	
15	종합건축사무소 장(미국)	125	67	40	
16	탐코엔지니어링(미국)	150	200	49.9	
17	에어링크 코리아(주)(미국)	102	65	50	
18	인터월드어쏘시에어스앤드아키텍스(미국)	102	62	49.02	
19	티에스케이건축사무소(미국)	54	63	92.59	
20	한국푸로콘(주)(미국)	5	18	100	
21	한국푸루아(주)(미국)	105	290	100	
22	길정건축(미국)	60	74	100	
23	오이코스(미국)	50	194	100	
24	유비콘엔지니어링(주)(미국)	50	64	100	
25	삼림컨설턴트(노르웨이)	450	280	48.95	
26	일송화경복원(주)(이태리)		700	35	
27	한미건설기술(주)(미국)	1,000	572	45.0	
28	디이콘설트코리아(독일)	50	64	100	
29	하이소트(일본)	50	64	100	
30	인맥스테크노로지(미국)	100	63	50	

■ 외국법인목록(시공)

번호	회사명	자본금(백만원)	투자액(천불)		비고
				비율(%)	
1	구다라 (일본)	2,000	1,400	48	
2	대봉공업 (일본)	320	105	23.44	
3	한국쇼본드건설 (일본)	600	410	49	
4	해천 (일본)	596	89	11.16	
5	신원종합개발 (일본)	17,575	6,163	9.36	
6	홍화공업(주) (일본)	7,200	2,230	31.0	
7	아이도스주택건설(주) (일본)	150	62	33.33	
8	동해인터내셔널 (일본)	125	62	40.0	
9	창림산업(주) (일본)		150	9.09	
10	장기건설(주) (일본)		194	41.67	
11	오테크코리아(주) (일본)		64	90.09	
12	아이코스 코리아(주) (미국)	500	313	50	
13	인트라건설 (미국)	300	186	48.33	
14	아름 (미국)		200	33.33	
15	에스디케이환경기술 (미국)	100	67	50	
16	한국석묘개발(주) (미국)	50	68	100	
17	인휘티니 (미국)		64	51	
18	상지텍솔메나드 (프랑스)	1,000	617	50	
19	솔레땅쉬 범양 (프랑스)	900	537	50	
20	후레씨네 코리아 (프랑스)	233	353	55	
21	신행듀어 (독일)	550	5,987	50	
22	두진디비닥건설(주) (독일)		64	10	
23	브이에스엘 코리아 (스위스)	300	132	35	
24	동방이유씨 (오스트리아)	1,000	438	35.0	
25	삼보지질(주) (영국)	7,350	5,002	21.8	
26	에이디에취 (미국)	50	62	100	

-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대책수립 -

건설교통부(장관 이정무)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위원회, 예산청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대책」을 수립 3월 12일 경제장관간담회의에 상정,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추진키로 하였다고 지난 15일 발표하였다.

본 대책은 그 범위나 파급효과로 볼 때 지금

까지 타산업에 비해 특히 비효율적 생산구조를 가진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재고하며, 21세기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간 정부에서는 시급한 SOC확충을 위해 공공건설사업에 매년40조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나 잘못된 관행, 졸속한 사업추진 등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다고 자아비

판을 통해 인정하면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2002년까지 사업비의 20%를 절감할 목표로 수립 추진키로 하였다. 이러한 대책은 지난 10월부터 업계, 연구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추진단 (단장 : 최종찬 건교부차관)」을 구성하여 수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와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고 했다.

주요내용	세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사업 예산낭비 원천봉쇄, 연간 10조원 절감</li> <li>- 공공사업 지연시 정부도 해당업체에 손해배상</li> <li>- 공공건설 사업비 크게 증가하면 타당성 재검토</li> <li>- 공공사업 끼워넣기 없앤다.</li> <li>- 공공공사 보상안되면 발주조차 못한다.</li> <li>- 대형 고난도 공사는 턴키 또는 대안입찰의무화</li> <li>- 기공식 준공식 행사비용 업체부담 못 시킨다.</li> <li>- 신용도 불량 건설회사는 공사이행보증 못 받는다.</li> <li>- 건설현장 기능공이상 참여자 전원 실명화한다.</li> <li>- 공공사업 설계비·설계기간 보장하되, 부실설계시 처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발표 2002년까지 사업비 20%절감</li> <li>→ 설계시 제시한 기간의 1.3배이내 예산편성완료</li> <li>→ 선행단계 거치지 않은 경우, 후속단계 예산배정 금지</li> <li>→ 지금까지는 일단 착수후 늦장 보상</li> <li>→ 1,000m이상 교량, 2,000m이상 터널등</li> <li>→ 민·관 대등한 &lt;건설공사계약 현장&gt; 공포</li> <li>→ 9월부터 연대보증대신 공사이행 보증제도로 전환</li> <li>→ 현장 기능공이상 참여자 업무 내용&lt;공사지&gt;에 수록 의무화</li> <li>→ 부실공사방지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증가 요인 사전차단</li> </ul>